

2 0 1 9 . 1 · 2 월 / 통 권 1 0 3 호

독립정신

권두언_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특집 1_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특집 2_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열리기까지

지상중계_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주최,
〈피로 묵(墨) 삼아 기록한 꽃송이〉 출판기념 북콘서트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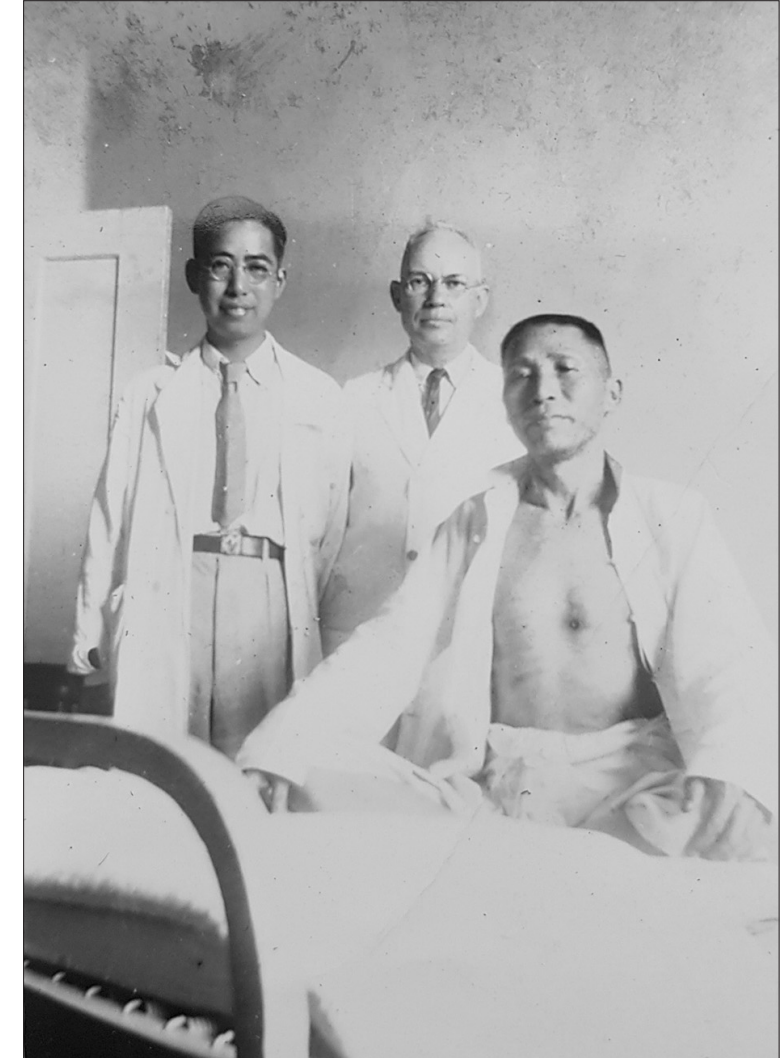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신년 축하식(1921.1.1)

이 장소는 현재 영안백화점 옥상으로, 최근 상하이 총영사관이 확인을 했으며, 정부는 독립 유적지 지정을 검토 중이다.

- 1줄 박윤근 전재순 김구 오희원 ○ ○ 유기준 정태희 김재덕 김봉준 ○ 정제형
2줄 이규홍 김철 신익희 신규식 이시영 이동휘 이승만 손정도 이동녕 남형우
안창호 오영선 윤현진 서병호 조완구
3줄 ○ 임병직 ○ 김복형 도인권 최근우 김인전 이원익 정광호 김태연 이복현
○ 김홍서 나용균 황진남 김정목
4줄 ○ 왕삼덕 차균상 김여제 안병찬 장봉 김석황 이규서 김용철 ○ 송병조
양현 조동호 이유필



백범 김구 선생이 1938년 '남목청 사건' 때 가슴에 일제 밀정의 총탄을 맞은 자국을 드러낸 채 의연하게 앉아 있다. 피격 직후 중태에 빠진 백범은 중국 창사(長史) 상아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며, 사진은 수술 한 달여 뒤에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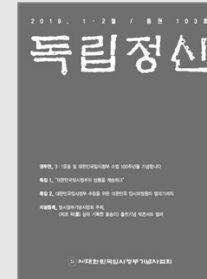


독립정신

2019 1*2

통권 103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독립정신과 민족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곽태원, 김대영, 원희복, 이일선, 박덕진, 최석우, 안정흠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0317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7837@daum.net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15

- 04** 권두언_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 김자동



29

- 07** 특집 1_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 한인섭

- 18** 특집 2_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열리기까지
| 이재호



35

- 29** 지상중계_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주최,
〈피로 묵(墨) 삼아 기록한 꽃송이〉 출판기념
북콘서트 열려
| 편집부

- 36** 피로 묵(墨) 삼아 기록한 꽃송이 ①_
신년의 갱진(更進)
| 도산 안창호

- 37**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_
대구 독립운동을 알아예?
| 정인열

- 47** 임정서가_
피를 묵(墨) 삼아 기록한 꽃송이
심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임정로드 4000km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 알기
| 편집부

- 49** 독립정신 이모저모



39



50



52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김 자 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1919년 발표된 3·1독립선언문은 이 나라가 독립국임과 우리 겨레가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대한은 어느 나라에도 예속되지 않은 나라이며, 대한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날 선언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같은 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3·1 선언의 명백한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을 표방했습니다.

임금이 대한의 주인이 아니라, 인민이 대한의 주인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열들은 조국광복을 위해 가열차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자마자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반통일 세력이 독재로 군림했고, 이번에는 평화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백년, 마침내 역사는 제 길을 찾았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도도합니다.

안으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원칙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평화가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2018년의 전환을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했습니다.

오랜 기간 얼어 있던 남북관계가 부드럽고 원만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종전이 선언되며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평화는 남북이 공유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 평화의 길로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걸어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휴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도 이 평화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최근 군사력을 증강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개정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 군국주의의 망령이 아베 정권에서 부활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2차대전 패전 이후 과거청산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력으로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이런 퇴행은 동아시아 평화뿐만 아니라 일본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베 정권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2019년입니다.

민주공화정 백년을 거름으로 삼아 새로운 백년을 향해 나아가는 해입니다.

제 나이가 우리 나이로 아흔 둘.

이런 제가 젊은 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대한의 주인이며, 대한인은 자주민이라는 선언.

이것은 ‘주권재민 정신’이며, ‘독립정신’입니다.

이렇게 지난 백년을 기억하며 새로운 백년을 열어나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한 인 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서울대 법대 교수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는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임시정부”라는 글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건립했지만, 임시정부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던 것입니다. 임정의 주요 인사들이 1948년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불참했다고 해서 단절성을 부각시키는 견해도 있지만, 긴 역사의 흐름에서는 개인적 단절보다 역사적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훨씬 풍부합니다.

임시정부의 법적 출발점인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국호,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가 다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1조는 지난 100년간 주요 헌법 문서에서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한민족의 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따로 논해야겠지만, 국민이 주인이 된 ‘민국’의 출발점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이고, 그것은 3·1혁명이라는 전국민적 참여와 희생의 토대

위에 놓인 점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후 헌법개정에서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그 의미를 더욱 모호하게 처리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을 헌법 전문에 명기한 이유를 제대로 모르는 역사적 빈곤 탓입니다. 그러다가 1987년 헌법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임시정부”와 “법통”이란 단어가 확실히 명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우선 전제할 것은 헌법의 글자 하나 하나는 누군가가 공들여 창안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글자가 저절로 생길 리가 없지요. 그 내력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워낙 중요한 주제인데도, 그 내력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87년 6월 전국적인 민주항쟁에 압도되어 전두환 군사정권은 양보안을 낼 수밖에 없었고, 6월 29일에 집권당(민주정의당) 측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 씨가 직선제 개헌 등 헌법개정을 약속했고, 이를 정치권과 국민이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개헌작업이 국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때 헌법개정의 실무책임을 맡은 8인이 있었습니다. 여당(군사정당인 민정당)에 4인, 야당(민주정당인 신민당)에 4인, 이렇게 여야 동수로 꾸려졌습니다. 당시 의석분포로 따지자면, 여당 6인, 야당 3인으로 해야 됐겠지만, 6·29 노태우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여 이루어진 헌법개정팀이기에 여야 동수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시민혁명의 한 성과라 할 수 있겠지요.

헌법개정에 실제로 가장 많은 조문을 다듬고 역할을 한 것은 8인 중 민정당 쪽에서는 현경대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법조인이었고, 제주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기에 군사정당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덜 받을 위치였습니다. 8인 소위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제안한 것은 현경대 의원이었습니다. 야당은 직작부터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있었던 터라, 여야 합의에 이르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경대 의원은 어떻게 이를 성안했을까요. 여기서 이종찬 의원과 김준엽 선생이 등장합니다. 이종찬 의원은 여당인 민정당을 설립하는 데 주무 역할을 했고 1987년 당시에 영향력 있는 여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종찬 의원

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문자를 정리하여, 이를 헌개특위 위원인 허청일 의원에게 헌법 전문에 관한 각종 자료와 함께 그대로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허 의원은 군장성 출신으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오히려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종찬 의원은 헌개특위 간사인 현경대 의원에게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현 의원은 이해가 빨랐습니다. “동감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시지요.”¹⁾ 이렇게 하여, 헌법 전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종찬 의원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종찬은 1981년 군사정당인 민주정의당 창당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80년대 초에 원내총무를 다년간 역임합니다. 육사를 나온 군장교 출신인데, 1970년대에는 중앙정보부의 국외 파트를 맡아 영국에서 무관도 했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980년 초에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하면서, 중앙정보부의 상급자들은 김재규 관련으로 하여 줄초상이 났습니다만, 국외 파트에 있던 이종찬은 화를 면했고, 실무력이 뛰어나니 전두환이 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까지만 보면, 그가 이런 임시정부의 법통을 생각해낼 계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통상의 군인, 중정 요원과 다른 그만의 특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가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구한말과 일제하의 애국자 중의 애국자지요. 이회영·이시영 등 5형제는 구한말에까지 거대한 토지를 가진 세족인데, 한일합방 전후하여 재산을 모두 처분한 자금을 밑천으로 하여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상해임정을 세우는 데도 앞장서고, 끝까지 독립항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회영 선생은 일제에 잡혀 고문사하고, 이시영 선생은 해방 이후 환국하여 초대 부통령까지 역임하는 애국자 중의 애국자 가문입니다. 이종찬의 부친도 왜경에게 붙들려 고문당하고 불구의 몸이 됩니다.

이종찬의 출생지는 중국 상하이이고, 해방 당시 10살 나이였습니다. 해방을 기념하여 임시정부 요원들이 찍은 사진 중에 태극기를 든 소년·소녀가 앞자리에 있는데 그 소년이 바로 이종찬 소년입니다. 그의 부모들은 신흥무관학교 이래 군사의 중요성을 아는지라, 이종찬에게 육사를 가라고 권유하였고, 그는

1)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2>, 한울, 2015, 64~66쪽

애국의 기초는 국방을 수호하는 진짜 군인이 되는 길이라 하여 육사에 입교했던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는 민정당 창당의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민정당 창당 때 나름 정통성을 높이려고 유석현 같은 의열단원을 원로로 모시기도 하고, 나름 독립정신을 연결하느라 애쓴 점이 적지 않습니다. 마침내 1987년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임정 법통 계승이라는 대명제를 헌법 전문에 넣게 되는 데까지 이릅니다. 독립운동 가문의 숨은 승리라고 할까요.

그럼 이 문구는 이종찬 의원의 독창적 아이디어였을까요. 해방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임시정부 출범이 3·1운동과 함께 대한민국 정사 제1장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학술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한 중심인물은 김준엽 선생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아세아문제연구소를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시킨 공로자이고, 〈한국공산주의운동사(전5권)〉란 역작으로 유명한 분이고, 고려대 총장으로서 군사정권의 압력을 물리치고 학생들을 옹호한 민주 총장으로 지금까지 존경받는 그분입니다. 김준엽 선생은 고려대 교수와 총장을 역임한 뒤 당시 존경받는 야인으로서, 지성의 사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986년부터 그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또 언론칼럼을 통해 이를 표명합니다. 김준엽 선생은 1987년 헌법개정 국면에서 노태우 민정당 대표에게도 정치참여 권유를 거절하면서, 이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찬 의원을 직접 불러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임정의 법통을 잇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일을 이 의원 말고 누가 하겠소. 현재 민주당 안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정당 안은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신과 법통은 대단히 큰 의미의 차이를 낳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틀림없이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으로 반영해 주시오.”²⁾

바로 그 문구를 이종찬 의원이 가져가서 반영해낸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창안자는 김준엽 선생인 셈입니다. 물론 이종찬 의원은 당시 광복회장인 이강훈

선생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고, 이강훈 선생도 당연히 꼭 넣어야 한다고 독려했고, 이러한 성원을 옹고 개헌특위에 강력히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헌법 전문이 통과된 뒤, 김준엽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 기념회’를 열어 축하했다고 합니다. “광복42년만의 감격적인 일”이고, 자신의 “숙원”을 성취했다고 자평합니다.³⁾

김준엽 선생은 ‘역사의 신’을 믿는다고 할만치 역사 의식이 깊은 역사가이자 현대정치사상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가 그토록 임정 법통을 강조했는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바로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제 말기 일제는 중국침략을 단행하는 대동아전쟁(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 침략병력을 충당하기 위해 우리 청년들을 징병하고, 강제징용을 합니다. 김준엽은 짐짓 자원하여 학병으로 중국 서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병영을 탈출한 제1호 병사였습니다. 그에 이어 장준하, 노승서 등 학병 출신 징집병들이 탈출합니다. 그들은 합류하여, 일본의 체포 위협을 뚫고, 온갖 역경을 겪으며 6천리를 걸어, 마침내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에까지 도달합니다.

임시정부에 합류하기 위하여 중국파병을 자청했던 이 청년들이 6천리를 걸어 충칭에 도착하자, 김구 임시정부 주석은 “모두가 왜놈의 개가 된 줄 알았는데, 이런 청년들이 탈출해 오니 너무나 기쁘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김준엽, 장준하 등 열혈청년들은 광복군에 편입되어 활동하다가, 그들의 특출함을 눈여겨본 미군들에 의해 OSS부대의 일원이 되기도 하고, 8·15 직후 국내 진공작전의 선발대로 여의도에 있던 일본군 공항에까지 착륙하기도 합니다.

김준엽은 해방 후 중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학자로서의 오롯한 길을 걸었지만, 또한 평생동지 장준하와 함께 〈사상계〉잡지를 같이 내기도 하는 실천적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1987년에 이르러 우리 헌법 개정, 민주개정이 박두한 시점에 “임정 법통 계승”을 명기하기 이른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평생의 과제를 이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 속에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바로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몸담았던 청년애국자 김준엽의 평생 숙원의 달성이었습니다.

2) 이종찬, 위 책, 65쪽.

3) 김준엽 현대사, 장정4:나의 무직시절, 1990, 185-186쪽.

“임시정부의 법통”이란 구절은 그러한 법통을 연결시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던 애국선열의 피눈물과 그러한 지혜를 간직한 지식인과 후손들의 한평생 삶의 실천으로 뒷받침된 것입니다. 마지막 광복군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이루어낸 쾌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이 구절은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피와 눈물과 지성의 역사, 시대의 맥박을 함께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김준엽 선생이 강조한 점 하나를 아울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과 법통은 대단한 의미의 차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정신 계승은 다양한 각도로 해석될 수 있고,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주관적이니까요. 그런데 법통의 계승은 의미가 확실하고 객관적입니다. 대한민국을 기념하려면, 그 대한민국의 출발점까지 법적 계통을 소급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에 의해,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8·15해방-제헌헌법 반포-8·15정식정부 수립이 일관된 계통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역사학자였기에, 누구보다 그 법통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던 것이고요.

김준엽 선생이 말한 커다란 의미의 차이는 2008년 이후 비로소 확인해집니다. 그때 뉴라이트 쪽에서는 건국절 주장을 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하면서, 건국절은 1948년 8월 15일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2008년은 건국60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5천년 역사를 가졌다는 나라에서 갑자기 건국을 별도로 꺼낸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1948년을 건국절로 삼아버리면, 그 이전의 항일독립운동과 민주국가 수립운동은 건국 이전사가 되어 버립니다. 더욱이 1948년 정부 수립 시엔, 임시정부의 주역인 김구, 김규식 등이 불참했고, 38선이 분단되었고, 친일파가 그 정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반쪽정부의 수립에 반대하고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애국자들의 주장은 자칫 건국반대세력으로 낙인찍힐 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하 독립운동 때문에 나라가 독립된 게 아니라 독립은 순전히 미국의 덕분이고, 반쪽 단독정부를 앞장서 외친 이승만만이 ‘국부’의 자격을 갖고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됩니다. 이들은 정권의 지지를 얻으며 막대한 이념공세를 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게 다름 아닌 1987년 헌법 전문이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바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박아 놓았기에, 1948년 건국절은 바로 헌법에 반하는 주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인 김준엽 선생이 “법통”을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바로 그러한 시대적 선견지명이 있음을 이때 뚜렷이 확인하게 됩니다. 1948년 건국절 주장은 온갖 언론 공세와 물량 공세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명문 규정과 민족정기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은 물러섰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건국 60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모태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미군정 3년’이란 주장까지 폈습니다. 그러니 광복회를 비롯한 민족운동단체들은 그 기념행사를 일제히 거부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건국되었다면 자신들의 피나는 독립운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니, 건국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건국훈장을 반납하겠다고까지 결의했습니다. 이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임시정부는 실로 대한민국의 뿌리요, 정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고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정신은 말했지만, 법통 언급은 않았습니다. 다소 교묘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 8·15경축사에서 박대통령은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해 2016년 8월 12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유가족과 애국지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자리엔 덕담만 오가는 자리이고,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말씀을 주로 황궁무지로소이다 하는 자세로 듣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광복군 출신이고 91세의 연로한 독립운동자인 김영관 선생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건국절 주장은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이며, “건국절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도 않고 역사왜곡이고 또 역사의 단절을 초래한다 ... 왜 우리 스스로 역사를 왜곡하면서 독립투쟁을 과소평가하고 나라를 되찾으려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통박했습니다. 실로 광복군 출신다운 대단한 기개지요.

왜 임정법통성을 부인하고, 1948년을 건국절로 삼으려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민족독립과 민주 수립에 헌신했던 독립운동가와 광복군 출신들의 기개를요. 김구, 장준하, 김준엽, 김영관. 모두가 기개 있고, 위엄 있고, 소신이 분명한 일관된 삶을 갖춘 인물들의 배출을 저지하고, 권력추종자들을 양산코자 함이 아니던가요. 목숨을 걸고 항일운동을 전개한 애국자들은 일본군이든 독재

정권이든 무서워하지 않는 기백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기백과 당당함을 후 세대들이 온전히 배우게 된다면, 독재자들이 설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정법통설이나 건국절이나 하는 논쟁은 단지 역사학적 논쟁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인물을 모델로 배워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논쟁임을 김영관 선생까지의 예화들이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글의 맺음은 김준엽 선생의 글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김준엽 선생은 임정 법통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글을 썼습니다. 긴 글도 있고 짧은 글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가 쓴 칼럼 한 편을 전제합니다. 전반적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김준엽,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동아일보 1987년 2월 23일

우리 한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민족국가의 자주의지와 역사적으로 장구한 문화사적 연속성을 견지해 왔다. 아직은 분단상태에 있으나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래침략과 국난기를 거치는 동안에 을지문덕 이순신 등 민족적 영웅을 배출하여 한민족의 자기동일성의 원천인 국혼(國魂)을 견지하면서 빛나는 국난극복의 민족사를 창조해 왔다. 민족사의 정통성의 사관(史觀)에서 독립운동과 그 대표적인 표현인 3·1독립정신 그리고 그 민족혼이 민족국가의 잠재적 형태로 구현된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사의 주체인 동시에 조선왕조의 왕조사가 종말되면서 정치사적 공백을 메우는 채로 대두된 우리 민족의 정통적 공권력의 원천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사적 정통성 문제는 이 상해 임시정부가 항일독립운동 특히 3·1운동 정신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1945년 일제 패망까지의 국외에 존재한 민족주권이며 우리 민족의 유일한 정부였다는 사실의 인식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해방 후 중경(重慶)에서 돌아온 임시정부나 모든 광복운동자 전체가 건국에 있어서 집권에서 소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대한민국 건국이념에서 그 헌법의 기본정신 중 가장 중요한 민족사적 정통성의 근원은 역시 광복운동자 전체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존재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

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 명시되어야 할 그 건국정신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족사적 정통성의 근원이 된다는 명제를 차례로 논증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임시현장의 전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19년 3·1 독립운동과 그 독립선언에 의해 탄생된 3·1 독립정신의 정통적 계승자요, 그 소산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3·1 독립정신에 의해 독립국가를 건설할 민족자결의 권리를 선언하고 난 다음, 세 갈래의 임시정부 즉 한성임시정부, 노령대한국민 의회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나 곧 세 정부는 통합절차를 거쳐서 상해 및 노령 임시정부를 해소하고 3·1 정신을 계승하여 한성 임시정부의 법통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가 확정되고 그 정부 소재지를 상해로 정했다.

셋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근대적 민주헌정의 신기원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집단지도체제, 주석제 등 갖가지 권력구조를 모두 체험해 보고 1944년 제4차 개헌에서는 삼균주의(三均主義)를 반영하여 민주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가미한 복지국가형 민주주의의 이념도 제시해 보았다.

넷째로 우리는 대일전쟁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국제적 승인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교전국의 자격을 자인했다는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 국내에 진입하여 자력으로나 연합국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자력에 의한 민족해방을 위해 광복군을 조직하고, 1941년 12월 9일 〈대일선전성명〉을 발표한 역사적 사실을 중요



광복군 청년들. 오른쪽부터 장준하, 김준엽, 노승서 (1945. 8.20)

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방 후 복국(復國) 과정을 살펴보면 광복운동자 세력을 소외시킨 미군정의 무정견(無定見) 탓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환국을 열렬하게 고대하던 국내 민족주의 세력을 실망시켰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을 마련해 준 결과가 되었다.

아베(阿部信行) 총독이 송진우(동아일보 사장)에게 접근하여 법과 질서의 유지를 맡아달라고 간청했을 때 송진우는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당시의 복구과정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송진우는 해방 후 건국과정에서 식민통치가 해체된 이상 한국의 통치권은 1919년 고종 황제가 봉어한 이후 황제로부터 통치권을 계승한 유일한 통치기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뿐이라고 하는 통치권원 정통성에 관한 해석에 입각해서 임정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역설한 것이다(1945년 12월 21일 송진우 라디오방송). 그후 한민당은 중경 임시정부가 1919년 이후 왕조사를 계승한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합법정부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미군정의 대한정책은 복국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운동 세력을 소외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지른 것이다.

여기서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해방 후 중경 임시정부나 광복운동 세력이 정치적으로 소외된 결과와 아울러 5·16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의 역사적 존재와 그 민족사적 정통성 원천으로서의 건국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서까지 삭제한 것은 더욱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5·16 이후의 헌법 전문에서 삭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광복운동사적 정통성을 복원하는 일은 오늘의 개헌작업에서 기필코 성취되어야 할 과제다.

헌법의 전문은 헌법 제정의 유래와 헌법 제정권자, 제정목적, 헌법의 기본원리 등을 선언하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며, 그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국정신과 그 통치권원(統治權原)의 민족사적 정통성의 명시다. 우리나라 헌법은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장(1919년 4월 11일)으로부터 해방 후 제헌국회가 제정한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전문을 채택해왔고 그 전문에는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으로 3·1독립정신의 계승을 명시해 왔다. 해방 후 1948년 7월의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서도 <임시헌장>의 선례에 따라 3·1독립정신의 계승을 그 건국이념으로 선언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족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1948년 제헌국회의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임정의 건국을 제1공화국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전통성의 근원인 동시에 정당한 통치권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5·16 이후 1962년 12월 26일의 공화당 정권 시 헌법의 전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 부분을 삭제하고 다만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이란 표현만 남긴 다음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가 새로 추가되었던 것이다. 5·16 이후의 개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과 그 민족사적 정통성”의 내용을 그 전문에서 삭제한 것은 헌정사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1972년의 유신헌법에서도 이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든 반민주적 헌법으로서 5·16 후의 헌법 전문과 다름없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광복운동의 헌법 제정 유래로서의 지위를 부정했다. 제5공화국 출발에 있어서 1980년 10월 27일 헌법개정에서도 5·16 후의 헌법 전문과 다름없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그 전문에서 되살리지 못했다.

새로 개정되는 헌법의 전문에서는 3·1 독립정신의 계승과 더불어 첫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민족이 세운 민주공화국의 효시로서 제1공화국이라는 사실과, 둘째로 1919년의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이 우리 헌정사의 시점으로서 그 헌법 제정의 유래로서 명시되어야 하고, 셋째로 광복운동이 헌법전문 속에 표현된 건국정신의 원천으로서 제자리를 잡아 일제에 의한 피침사 35년만을 알리는데 그치지 말고, 그 역사를 민족저항의 독립운동사로 재해석하여 오늘의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대대로 후손들에게 국난극복의 보람진 민족사를 길이 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열리기까지

이 재 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100년이 지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임시정부 수립이 하루 전부터 개최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지금의 국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17년 〈대동단결선언〉으로 임시정부 수립을 촉구하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1917년 상하이에서 발표된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에서 비롯되었다. 1917년 7월 신규식(申圭植)·박은식(朴殷植)·조소앙(趙素昂) 등 14명은 임시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했다. 〈대동단결선언〉의 요지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민족대동회의를 열자는 것이다.

선언은 대한제국의 멸망을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군주가 주권을 포기함으로써 군주권은 소멸되었고, 군주권의 소멸과 동시에 국민주권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고종이 주권을 포기했으므로 이제 국민에게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해외同志가 감당하여 국

大同團結의宣言
夫合則立分則倒天道의原理오分久欲合은人情의律呂라撫念하건
대久로난三百年儒者의黨論이李朝滅亡史의太半을占領하엿고近에
至하야난十三道志士의墻隈이新建設의中心을攪亂하난도다如斯한
三分五裂의悲劇을目睹하고分門立戶의苦痛을備嘗한吾人은情律에
依하야大合同을要求함이自然의義務오仁道理에據하야總團結을主
張함이當然의權利로다非但吾人의主論이如是라一般同胞의聲이오
時代의命이니滿天下傷心志士에誰가獨히同感치안으리오
그러나總團結의問題난由來一久矣라聞하매耳一聒하고言하매齒一
酸하도다人皆曰合同合同하야도及其實行에關하야난或力不及에罪
를嫁하며或地不便에責을歸하며或競爭無害로題를轉하야左托右憑

大同團結宣言

가적 행동을 실천해야 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독립을 위한 전 단계로서 임시정부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그를 위한 民族大會議를 열자는 것이다.

〈대동단결선언〉의 노력과 시도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한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기관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3·1운동이 발발하였고, 그것은 전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리고 해외동포에까지 전파되면서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확대 발전되어 갔다.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 3·1운동을 이끌어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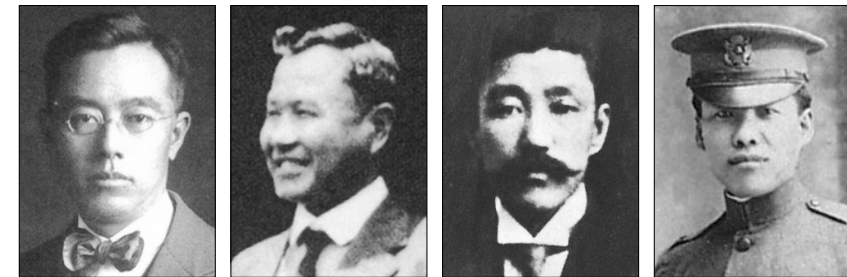
3·1운동은 모든 한민족이 참여하여 일제의 식민통치를 부정하고, 민족의 절대 독립을 요구한 독립운동이었다. 3·1독립선언서를 통하여 “조선의 독립 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대내외에 선포했으나, 새로운 독립 국가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3·1운동을 통해 표출된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한 곳으로 결집시켜야 한다는 것과 함께 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이 발표된 후,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많은 지도자들이 중국 상하이로 모여들었다. 3·1운동 직후 상하이에 독립운동가들이 속속 집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1918년 新韓靑年黨이 조직되어 활발한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신한청년당은 파리에서 열리는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전쟁 종결의 원칙을 결정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여기서 ‘식민지’ 처리 문제에 민족자결의 원칙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에 여운형(呂運亨)은 신한청년당 당원들과 논의하여 파리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대표는 영어에 능숙한 김규식(金奎植)이 선정되었는데, 대표가 내걸 이름이 필요했다. 개인 자격이 아닌 대표 명칭으로 11월 28일 신한청년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김규식은 1919년 2월 1일 상하이를 출발하였다. 이어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우선 각지로 대표를 보내 파리 강화회의의 선전 활동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또 한국인의 독립 열망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선우혁(鮮于爌)·김철(金澈)·서병호(徐丙浩)·김순애(金淳愛) 등은 국내로, 장덕수(張德秀)는 국내와 일본으로, 여운형은 만주와 노령으로 파견되었다.

이처럼 상하이에서 활발히 움직일 때 국내에서도 서울의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었다. “상해에 대표를 보내 열강에 독립을 청원하는 문서를 발송” 하기 위해 현순(玄楯)을 상하이로 파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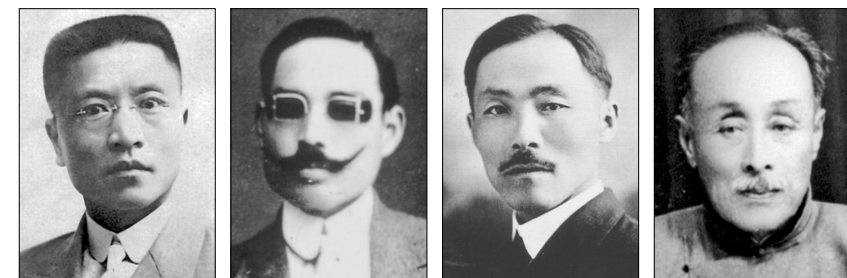


김 규 식

노 백 린

문 창 범

박 용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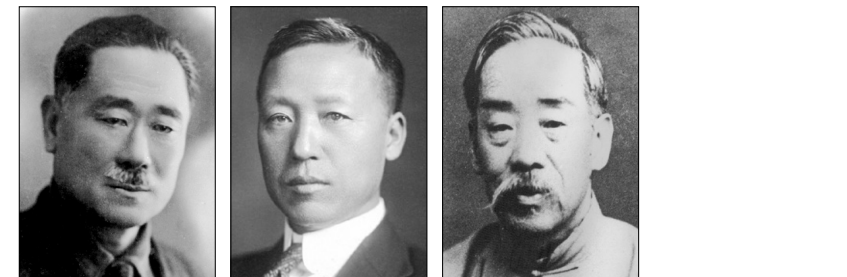


손 정 도

신 규 식

안 창 호

이 동 녕



이 동 휘

이 승 만

이 시 영

(이상 가나다순)

독립임시사무실을 열고 최고지도기관 수립을 논의하다

1919년 3월 중순 만세운동 소식이 국내외로 퍼져나가자 상하이에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은 프랑스조계 보창로(寶昌路, 현재 淮海中路) 329호에 독립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최고지도기관을 세우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독립임시사무실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 데는 현순의 역할이 컸다. 현순은 국내에서 3·1운동을 준비하던 과정에 동참했다가 이승훈(李承薰)을 비롯한 기독교 대표들의 뜻에 따라 상하이로 파견되었다. 현순은 평티엔(奉天, 현재 瀋陽)에서 최창식(崔昌植)을 만났고, 그와 동행하여 3월 1일 상하이에 도착했다. 국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그날 상하이에 도착한 현순과 최창식은 미국인 선교사 피치의 소개로 선우혁을 만났다. 선우혁을 통해 신한청년당 인사들을 만난 현순은 프랑스조계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현순이 독립임시사무실 총무에 뽑혀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국내의 33인이 파견한 대표라는 상징성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현순이 국내를 출발할 때 이승훈이 천도교 측으로부터 받은 운동자금 2천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독립임시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독립임시사무실이 문을 열던 초기에 참가한 주요 인물은 현순과 여운형을 비롯한 신한청년당의 대표자들, 일본에서 2·8독립선언을 준비하다가 상하이로 온 이광수(李光洙)와 미국에서 온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呂運弘) 등이었다.

독립임시사무실의 역할과 활동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국내와 연결하여 3·1운동의 소식을 파리강화회의와 국외 교포들에게 널리 알리는 선전 활동, 둘째는 국내외 주요 민족운동단체의 대표자들을 상하이로 결집시켜 독립운동의 향후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일, 셋째는 그러한 일을 통일적으로 지도 전개할 수 있는 최고기관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3월 4일 아침, 3·1운동 발발 소식이 연합통신을 통해 상하이의 〈The China Press(英文大陸報)〉에 보도되었다. 이후 이들은 본격적인 선전 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베이징(北京)과 노령 등지에서 온 이동녕(李東寧)·이시영(李始榮)·조완구(趙琬九)·조성환(曹成煥)·김동삼(金東三)·조소앙 등 30여 명이 3월 하순경 한 자리에 모였는데, 여기서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을 수립할 시기와 조직형태를 두고 참석자들 간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최고기관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당인가? 정부인가?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지도자들이 상하이로 모여든 것은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최고기관이 처음부터 ‘임시정부’로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독립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결성할 조직체의 성격이나 형태를 둘러싸고 두 가지 의견이 맞섰다. ‘정부’를 수립하자는 의견과 ‘정당’을 설립하자는 의견으로 나뉜 것이다.

- 정부수립론 : 1910년 일제 침략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뒤로 나라 안팎의 동포들이 ‘정부’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고, 정부를 조직함으로써 공개적인 지원을 얻어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기대할 수 있다.
- 정당수립론 : 정부 조직이 주권과 영토, 그리고 정부를 운영할 기반이 되는 국민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 실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라는 형식에 집착하기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정당을 조직하는 편이 낫다.

이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 국내에 남아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했다. 이광수는 국내 소식을 듣기 위해 사람을 파견해 놓고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4월 8일 열린 모임에서 신한청년당을 비롯한 다수의 독립임시사무실 인사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단행하겠다고 하면서 “왜 밤낮 33인만 거드느냐, 나라의 법통이 하필 33인에게 있느냐, 만일 33인이 아무 의사도 남겨 놓은 것이 없으면 영영 정부 조직을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분개하였지만, 이날은 그대로 해산했다.

이튿날(4월 9일) 사태가 매우 심각해졌다. 지도자격인 이동녕을 비롯하여 상하이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겠다는 것이었다. 현순, 이광수 등 임시사무소 멤버들은 부랴부랴 각 여관으로 찾아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오전 10시에 “새로 얻어 놓은 사무소”로 한 번만 더 모이자고 설득했다. 시간이 되어 30명 정도가 모였다. 이광수는 “간밤에 예배당에 보였던 사람들의 반수 밖에 안 모였으나, 주요한 이들은 다 모인 셈”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임시의정원 제1회 의원으로 임시정부 수립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이광수는 이날의 회

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모인 방은 이층 동쪽 기름하게 생긴 방이었다. 이 집은 임시정부가 서면 정청으로 쓸 양으로 대양 삼백원이나 세를 주고 얻은 꽤 좋은 프랑스조계의 양식 주택이었다. 잔디를 심은 뜰도 넓고 방도 여럿이었고, 식당도 큰 것이 있고, 댄스를 하게 반반마루를 깔 큰 방도 있었다. 오늘 모이는 이들은 이 집을 처음 보고 놀라는 모양이었다. 우리 사무 보는 사람들(임시사무실 사람들 - 인용자)도 여전히 하비로(보창로) 난잡한 집에 있었고, 이 집은 아니 썼다.

이광수, <나의 고백>, 춘추사, 1948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지 ‘金神父路’(현재, 瑞金二路)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신익희의 비서가 쓴 <海公 申翼熙>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장소가 ‘김신부로 60번지’라고 나와 있다. 아직까지 독립기념관에서도 이곳을 본격적으로 조사하지 못했다. 100주년을 맞는 올해 사적지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회의가 시작되면서 이광수는 먼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그것은 “상해에 와서 지금까지 사무를 보던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이실 기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는 데까지는 전보로, 혹은 편지로 여러분께 독립운동의 소식을 알려 드리고 또 상해로 모이시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독립임시사무실의 설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어 이광수는 그동안 임시정부의 수립이 지연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서울로 보낸 사람(이봉수)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 정부 조직에 대한 33인의 의사를 듣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재외동포의 대집단일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 큰 힘을 쓰고 큰 희생을 하여 온 미국에 있는 국민회와 서·북간도와 아령에 있는 민족운동단체에서 아직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말한 다음, 이광수는 “우리가 지금까지에 보던 일과 정부를 조직하는데 관한 것을 여러분께 맡겨 드리고 우리들은 사무실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다.

이광수가 밝힌 이유를 듣고 이날 모인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어떤

사람이 “나는 가오”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경성전문학교 학생 한위건(韓偉鍵)이 “못 나가십니다. 정부 조직이 끝나기 전에는 한 걸음도 이 방에서 못 나가십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수많은 남녀 동포들이 피를 흘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동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밤이 아홉이라도 이 자리에서 정부를 조직하시고야 말 것입니다.”라며 문을 막아섰다.

이것이 한위건의 말인지 이광수의 생각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참석자들 간에 이견으로 상당한 진통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순도 임시정부를 조직할 때 “有爲의 靑年들이 拳銃·木棒들을 가지고 와서 一方은 會中을 保護하며 又 一方은 會中을 威脅하여 公正한 組織을 催할 것이요”라고 특별히 언급했다.

이처럼 격론과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지다 끝내는 정부조직론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상하이에 모인 인사들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이미 각처에서 등장한 최고기관의 형태가 ‘임시정부’로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었다. 3·1운동 후 노령(露嶺)의 大韓國民議會,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내의 한성정부 등 8개의 임시정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직·공표된 것은 3·1운동을 조직적인 독립운동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중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회의 성격을 갖는 임시의정원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임시의정원(국회)을 열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는 1919년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렸다. 4월 10일 밤 10시에 개원하여 4월 11일 오전 10시에 폐원한 것으로, 임시의정원 공식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불과 12시간 만에 상해에서 임시의정원의 조직과 정부 수립이 완료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3월 초에 설립된 독립임시사무실이 정부 청사를 미리 마련해 둘 정도로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최고기관 수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1919년 4월 10일 상해의 金神父路 60호에 모인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모두 29명이었다.

玄楯, 孫貞道, 申翼熙, 曹成煥, 李光, 李光洙, 崔謹遇, 白南七, 趙蘇(素)昂, 金大地, 南亨祐, 李會榮, 李始榮, 李東寧, 趙琬九, 申采浩, 金澈, 鮮于懋, 韓鎮敎, 秦熙昌, 申鐵, 李洪根, 申錫雨, 趙東珍, 趙東祐, 呂運亨, 呂運弘, 玄彰運, 金東三

제1회 임시의정원 의원들의 면면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출신지역은 서울이 이회영 등 6인, 경기도가 조소앙 등 6인, 충청도가 신채호 등 4인, 경상도가 김동삼 등 6인, 평안도가 손정도 등 4인, 전라도가 김철 1인, 미확인자가 2인이다. 황해도와 강원도, 함경도를 제외하고 각도의 인물들이 안배되었다. 종교는 기독교인이 주류를 이루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명, 30대가 9명, 40대가 6명, 50대가 3명,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4명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2~30대는 거의 대부분 전문학교 이상의 수학 경력을 갖고 있었다.

◆ 회의 명칭의 결정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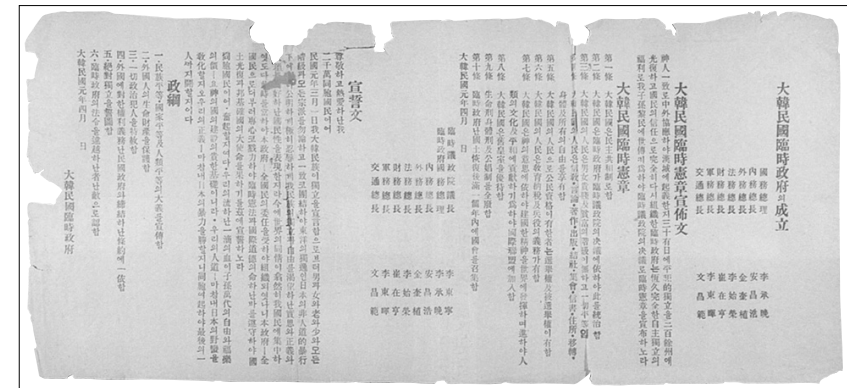
회의가 열리자 제일 먼저 “本會의 名稱을 臨時議政院이라 稱하기로 조소앙의 動議와 신석우의 再請으로 可決”되었다. 이날 성립한 임시의정원은 한국사에서 최초로 결성된 ‘의회’ 조직체였다. 길게는 독립협회가 20여 년 전에 추진했던 의회설립운동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국회’의 기원이 된다.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0조에 “臨時政府는 國土 回復 後 滿一箇年 內에 國會를 召集함”이라고 했다.

◆ 의장단 선출

이어 임시의정원 의장단 선거에 들어갔다. 여운형의 동의에 따라 무기명 단기식투표로 실시되어 이동녕을 의장, 손정도를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이광수와 백남철을 서기로 선출했다. 독립운동계의 원로인 이동녕이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에 선출된 것이다.

◆ 국호의 결정 : ‘제국’이 아닌 ‘민국’

그리고 임시의정원은 ‘國號’ 즉 나라의 이름을 정했다.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하자는 신석우 의원의 動議가 이영근 의원의 再請으로 가결되었다. 일



제에게 빼앗긴 국가를 되찾는다는 뜻에서 10년 전에 상실한 국가 이름인 ‘대한제국’에서 ‘대한’을 도로 찾아 쓴 것이고, 다만 정치체제를 황제가 주인인 ‘帝國’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民國’으로 채택하였다. ‘민국’이라는 국호의 제정은 한국사에서 최초로 민주정체를 달성했음을 뜻한다.

◆ 헌법의 제정 :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회 임시의정원은 국가운영의 기본법인 헌법을 통과시켰다. 임시의정원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임시정부를 운영한 것이다. 임시정부 수립 당시 제정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10개조로 구성된 선언적 규정이었다. 내용은 매우 간략한 것이었지만, 이는 한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여, 임시정부의 정체를 민주공화제로 한 것이다.

◆ 정부조직과 국무원 선출

끝으로 정부 각 부를 구성하고 내각 구성원을 선출하였다. 1919년 4월 임시정부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이 없고 국무총리가 가장 높은 직책이었다. 총리 아래에 내무부·외무부·재무부·군무부·법무부·교통부 6개 부를 두었다. 각 부의 대표자 직명은 총장으로 정했다. 이후 학무부와 노동국이 생기기도 하였고, 시기에 따라 그 수가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였다. 각 부서 책임자의 이름은 ‘총장’이나 ‘부장’으로 불리었는데, 현재의 장관을 이르는 말이다. 1919년 임시정부 출범 당시 정부 수반은 국무총리 이승만이었고, 그러다가

1919년 9월 통합정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중심제가 채택되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가 선출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라는 명칭도 임시정부에서 처음 채택했다. 민주공화정부를 처음으로 수립하였기 때문에 왕이나 황제가 아닌 민주공화정부에 맞는 직책과 직위를 새로 정한 것이다.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성립된 의회이다. 이곳에서 국가 이름을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 구성하였다. 국민의 뜻을 모으는 절차에 따라 국회적인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정부 수립을 일구어낸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실이다. 임시정부는 이를 뒤인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사실을 신문사와 통신사에 알렸다.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인 것은 대내외에 공포한 날에서 연유한다.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주최, 〈피로 묵(墨) 삼아 기록한 꽃송이〉 출판기념 북콘서트 열려



애국가 제창

사단법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주최하고,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1주년 〈백년의 약속〉 문학제”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독립신문〉 속 시(詩) 모음집 〈피로 묵(墨) 삼아 기록한 꽃송이〉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작년 11월 30일 청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시로 써 내려간 “독립”

일제강점기 망명지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손으로 많은 신문과 잡지가 발행됐다. 이 자료들은 독립운동을 증언하는 일차 사료(史料)로, 해방 이후 역사학계가 부단히 연구 성과를 축적한 바 있으나, 시나 노래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선열들은 독립을 향한 열망과 망명생활의 희노애락을 운문

에 담아 기록했고, 이 시와 노래들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단서이자 우리 근대문학의 정신적 뿌리이다.

사업회는 임정 수립 100주년을 앞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 실린 시들을 모아 책으로 펴내기로 했다. 시인 출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이디어를 냈고, 김자동 회장과 김선현 이사 등 사업회 측과 이종찬 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진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시집 발간 계획이 구체화되어, 한시준 단국대 교수가 책임편집을 맡아, 2018년 11월 한 권의 책이 탄생했다. 책 제목 <피로 묵(墨) 삼아 기록한 꽃송이>는 <순국제헌추도가(殉國諸賢追悼歌, 독립정신 154호 2면, 1923.1.31)>에서 따왔다.

半萬年 길게오는 우리歷史가
國粹를 保全코져 목숨바리신
志士와 仁人들의 피로墨삼아
記錄한 폐지폐지 꽃송이로다

<피로 묵(墨) 삼아 기록한 꽃송이>는 <독립신문>에 실린 시 178수를 게재 호 수 순서대로 엮었다. 이 시들에는,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받았던 한반도 안의



시낭송을 맡은 배우 이대연과 성우 전지원

문학과는 달리 독립의 의지가 독립의 언어로 오롯이 담겨 있다. 주제 또한 독립투쟁의 다짐부터 먼저 가신 선열 추도, 해방될 조국의 미래, 고향을 그리는데 달뜬 마음, 역경을 이겨내는 용기와 지혜까지, 독립이라는 두 글자 없이는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이다.

독립정신의 결정(結晶),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로, 안창호의 주도 아래 1919년 8월 21일 국한문판으로 창간됐다. 창간 당시 제호는 <독립>이었으며, 1919년 10월 25일 제22호를 발행하면서 <독립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프랑스조계 당국의 폐쇄 명령과 재정난, 참여 인사들의 귀국 및 변절 등으로 정간을 거듭하며 1926년 11월 30일 제198호까지 발행된 <독립신문>은, 임시정부를 따라 충청으로 옮겨 중문판 속간으로 이어졌다.

<독립신문> 초대 사장은 이광수였으며, 주요한이 출판부장, 조동호·차리석·박현환·김여제 등이 기자로 일했다. <피로 묵(墨) 삼아 기록한 꽃송이>는 창간호부터 충청 시절 중문판까지 <독립신문>에 실린 시를 모두 발굴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 시들 중에는 이광수나 주요한의 작품들도 있다. 변절한 이들의 시도 실어야 하는 논란이 있었으나, 시가 게재된 시점의 행보에 초



바리톤 김지욱



CTS강북 소년소녀합창단

점을 맞춰 빠지 않고 모두 실었다는 게 한시준 교수의 설명이다.

오늘이 첫 깃쁜 날이니
오늘이 億萬代 傳할 날이니
倍達의 子孫들아
倍達의 子孫들아
넉히여라 넉히여라 하늘의 주신 福土
* 넉히여라 : 넓히어라

한 편의 시에는 백 줄의 문장보다 많은 사연과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독립신문> 창간으로 고무된 독립지사들의 감정이, <독립일(獨立日), 독립정신 2호 4면, 1919.8.26>이라는 시에 그대로 살아 있다.

今日腐心潛水客 오늘은 절치부심하는 방랑객이지만
昔年臥薪嘗膽人 옛적에는 와신상담하는 사람이었다네
此行已決平生志 이번 행차는 평생의 의지로 결정하였으니



김자동 회장



이중찬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



이혜경 예술감독

不向關門更問津 관문으로 가지 않으면 다시 나루터를 묻겠네

- <주중(舟中), 독립신문 170호 1면, 1924.1.19>

<독립신문>에 시를 쓴 이는 임시정부 요인만은 아니었다. 의열단 단원으로 왜놈의 궁성 입구인 니주바시(二重橋)에 폭탄 3개를 던진 김지섭 의사는 거사를 앞두고 <독립신문>에 결의에 찬 시 <주중(舟中)>과 <신년(新年)>을 지어 보냈다. 고려공산당 창당 주역으로 끝내 임시정부로부터 등을 돌린 성재(誠齋) 이동휘(李東輝)와 코민테른 자금 사건에 휘말린 김립(金立)의 이름도 보인다. 작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시도 있다. 왜놈 밀정 아비와 독립군 아들의 기구한 사연을 그린 필명 노미아비의 <봉조와 덕삼, 독립신문 193호 14면, 1926.10.3>은 읽는 이로 하여금 땅을 치게 만든다.

“선열들께서 시집으로 다시 살아오셨습니다”

북콘서트는 오르가니스트 김강의 서주(序奏)로 시작했다. 이어서, 김성진의 지휘와 양하나로의 피아노 반주로 음악감독 류찬이 편곡한 민요 <도라지>를 CTS강북 소년소녀합창단이 불렀고, 사회를 맡은 이해경 예술감독(국민대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독립운동 선열들께서 그분들의 시로, 시집으로 다시 살아오셨습니다. 이 아름답고 깨끗한 모임이 독립운동가의 삶과 임시정부의 투쟁을 기리고 되새기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객석 앞줄에는 이중찬 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진위원장 내외, 나중환 광복회 부회장, 박중기 추모연대 회장, 김희선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장 등이 앉아 자리를 빛냈고, 김자동 회장은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는 환영사로 관객에게 답례했다.

북콘서트는 한시준 교수의 <독립신문과 시> 강연(박스 기사 참고), 배우 이대연과 성우 전지원의 시낭송, 바리톤 김지욱의 독창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출연자 전원과 관객이 한마음으로 <독립군가>와 <애국가>를 합창하며 막을 내렸다. 사업회는 추후 다른 독립운동 매체들에 실렸던 시들도 모아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강연 <독립신문과 시>

독립운동가들 쓴 시야말로 우리 문학의 자산

한 시 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



그 어느 출판기념회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연구하면서 <독립신문>을 술하게 뒤졌는데, 정작 시는 안 봤습니다. 이종찬 위원장님과 도종환 장관님의 격려로 시를 찾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타이핑을 하고, 번역했는데, 이 일이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에는 문외한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만,

제 이름 가운데 글자가 글 시(詩) 자, 바로 시할 때 시 자입니다. 대개 이름에는 때 시(時) 자를 쓰지요. 그동안 시와 관계없이 지냈는데, 이제야 이름과 인연이 닿은 것 같습니다. (박수)

독립운동 하신 분들,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사셨구나. 다시 느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감정이 있었구나. 연애도 하시고, 거지가 동냥을 하는데, 독립운동가가 줄 게 없어서 “형, 용서하라” 하며 거지의 더러운 손을 부여잡았다는 사연을 시로 읽고… (이 대목에서 목이 메어 한동안 말문이 막힘)

<봉조와 덕삼>에 나오는 사연은 또 얼마나 기구합니까. 만주에서 눈이 덮인 들판을 바라보다가 고향 생각에 그리움이 사무쳤다는 노래. 마음을 울리는 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떤 책이나 논문보다 이 시 한 구절을 읽으면서 독립운동가의 삶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고 움직이는 게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립신문>은 198호까지 발행되었고, 현재 영인판이 나와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관내에서 발행된 각종 신문, 잡지 등 회보가 72종이고, 만주와 미주 지역에도, 미주 신한민보는 더 많이 발행했지요. 여기에도 시가 실려 있습니다. 이 시의 존재에 그동안 별로 주목을 못했는데, 그걸 모은 게 이 일이 처음입니다. 이 책을 계기로 독립운동 시들을 모두 추려서 자료집을 발간했으면 합니다.

이 시들은 근대문학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최남선이나 <개벽>, <폐허>, <창조> 등 근대시들이 있는데, 문학사 연구 쪽에서도 이 시들에 주목해 주었으면 합니다. 근대시나 자유시들에 비해 시기적으로도 늦지 않습니다. 항일민족시 또는 저항시, 이름 붙이는 건 학계의 몫이지만, 독립운동가들이 썼던 시들을 다 모으면 우리 문학의 자산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게 그 시작입니다.

도종환 장관님, 감사합니다. 홍소연 선생님, 교정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북콘서트가 끝나고, 기념촬영

신년의 갱진(更進)

도산 안창호

아민국(我民國)의 나이 늙하감이어
싸라 지각이 늙가도다
적(敵)을 적(敵)할 마음이 점점 강함이어
동족을 적하는 사혐(私嫌)이 점점 슬허지도다¹⁾

난호이면 패하고 모히면 성공할 줄을 새다름이어
중앙정부 기치 하에 모혀들니로다

새로 나아갈 방향이 점점 정하여 짐이어
질서 잇는 운동의 길에 점점 드러가도다

허화(虛花)를 버리고 근본을 존중히 함이어
자체의 토대가 공고하여 지리로다

실력의 가치를 점점 새다름이어
각각 기(其) 직업에 충성하리로다
국민의 의무심이 점점 늙하감이어
납세와 징병의 일이 점점 실현되리로다

크게 모혀 크게 의논함이어
큰 방침이 세워지리로다

큰 방침이 세워짐이어
큰 힘이 중앙에 집중하리로다

큰 힘이 중앙에 집중함이어
큰 진행의 원동력이 베풂이로다

아아 일반은 이것을 점점 각오함이어
기대하던 국민대표회가 쉬히 실현되리로다

《독립신문》 대한민국 4년(1922) 1월 1일

1) 싫어지다.

대구 독립운동을 알아예?



정인열
매일신문 논설위원

1. 변방에서 변화의 중심, 그러나 식민도시화 침탈 운명의 대구

변화의 땅, 대구(大邱·원래 大丘)는 ‘빛’, ‘높다’, ‘크다’ 등의 뜻을 가진 달구벌(達句伐)로 알려진 고을이다. 대구는 옛부터 살기 좋은 삶터였다. 이미 선사시대부터 국내에서는 드물게 백두산 등에서만 생산되는 흑요석(黑曜石)이란 당시 최첨단 도구 재료를 쓴 앞선 사람들이 머문 유적이 대구 달서구 등에서 발굴된 일이 이를 말해준다.

분지의 대구는 주변의 높은 산(팔공산, 비슬산, 가야산)과 고개(팔조령, 조령, 죽령)가 둘러싸고 낙동강, 금호강이 감싸 흐르는 넓은 들판으로 농작물과 풍부한 강(江)의 물산이 생산됐다. 그래서 조선조 전국 8도에서 가장 많은 72개 고을을 거느린 경상도의 중심으로 그 감영(監營)이 1601년 설치됐다. 명실상부한 경상도의 정치, 행정, 군사, 경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였고, 이런 흐름은 근대까지 이어졌다.

물론 이렇게 나라의 남부 특히 경상도의 중심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역사 기록에 처음 나타나는 대구는 신라 때였지만 조선조 이전까지 한낱 변방에 그쳤다. 그러나 시간

이 지나면서 대구는 다른 행정구역 소속의 속현(屬縣) 위치를 벗어나 조선 세종·세조 때 지위가 격상됐다. 먼저 군사적으로, 이어 행정 중심에 올랐다.

이런 천혜의 지리환경의 장점으로 대구는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의 무풍지대, 안전처였다. 이를 간파한 일본인에게 대구는 일찍 낙토(樂土), 옥토(沃土)였다. 1894년 청일(淸日)전쟁 도발 이후 일제는 달성공원 일대 군(軍) 주둔, 식민통치기관 배치, 일본인 이주, 매국노 박중양(朴重陽)을 앞세운 대구 음성 철거 등으로 대구를 식민도시화 했다. 특히 1592년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직접 주둔할 조선 침략과 대륙진출 지휘병영을 대구에 준비한 것처럼 대구의 군사거점화, 병참기지화를 노렸다.

일제의 대구 침탈과 식민도시화 야욕 흔적은 일본인 기록에 술하다. 일본처럼 불을 토(吐)하고 땅이 꺼지는 지진도, 부산에서 겪은 태풍과 바람의 재해도 없고, 서울~일본 왕래에 알맞아 유사시(有事時) 본국 철수, 중국대륙 진출 거점으로 훌륭한 조건을 고루 가졌다며 대구의 자연지리적 천혜(天惠)를 찬양했고, 이런 대구를 오사가 상권에 편입해 대구 서문시장은 한·일을 통틀어 ‘최대 시장’으로 활용한 사실이 그렇다.

우리가 모른, 일제가 적극 악용한 대구의 자연재해 무풍지대 환경은 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가 10년 단위로 분석해 펴낸 재해연보 통계자료가 증명한다. 대구는 전국에서 피해나, 재해에 따른 피해복구 예산지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하(最下)였다.

2. 호국과 공동체 전통을 바탕으로 국채보상운동 침병이 된 대구

대구에는 일본인의 이주 행렬과 무력을 방패 삼은 상권 잠식, 일제 통치기구 설치, 군사거점 병참기지화 등으로 침탈됐다. 전국, 특히 치열했던 경북 의병투쟁도 대구로 번지지 못했고, 일제 무력과 시장에서의 의병(비적) 공개처형(총살) 등의 탓인지 의병활동은 뜸했다. 대구 독립유공자 155명 중 의병 분야가 4명(문석봉·김성륙·박화준·이춘화)으로 가장 적다. 이는 1919년 파리장서운동 때 137명의 유림(儒林) 서명자 중 대구(달성)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성주(15명) 다음(13명)인 사실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대구 출신 의병들조차도 대구 밖 지역이 활동 무대였다. 대구(달성) 출신 문석봉(文錫鳳)이 관직을 했던 충청도(유성)에서 첫 의병을 일으킨 것처럼, 의병 독립운동가의 활동터는 충남 공주(김성륙), 경북 울진 신돌석부대(박화준), 포항 장기(이춘화) 등지였다. 독립운동가 우재룡(禹在龍) 역시 팔공산까지 진출했으나 영천·포항 등에서 일어난 산남의진(山南義陣)에서 활동했다. 그만큼 대구는 의병 투쟁에 불리했다.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념화

이처럼 일제의 국권 침탈 시기에 대구 의병투쟁은 부진했지만 국권 회복의 애국계몽활동 등을 통한 대일(對日) 저항 활동은 활기찼다. 비록 부산에서 처음 구상됐으나 대구를 계기로 전국으로 퍼진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좋은 사례이다. 이런 대구의 저항 활동은 오랜 대구 고유의 호국(護國) 정신과 공동체 전통이 바탕이었다.

호국 전통으로, 신라의 대구호족 이재(異才)는 호국성(護國城)을 쌓아 서쪽 변방을 수호했고(최치원 기록), 고려 때 불력(佛力)으로 외침을 막고자 팔만대장경에 앞서 만든 초조대장경이 팔공산 부인사(符仁寺)에 있었다. 조선 임진왜란 때 대구 유림은 부인사 팔공의병진 구축과 20개 대구 전체 마을 의병진(의병장·유사)을, 영남 승병(僧兵)은 충지회부(영남치영아문)를 동화사에 두었다. 오랜 호국전통 역사다. 또 대구 양반 서침(徐沈)은 사유지 달성공원을 국가(세종)에 바치는 대신 온 고을 백성의 세금을 감면받게 했고, 두사충(杜師忠)은 집터를 경상감영 관아터로 내주었고, 정조(正祖)대왕조차 인정한 최흥원(崔興遠) 중심의 대구 부인동 향약(鄉約)은 대구의 공동체 유지에 한몫 했다.

이런 정신의 전승으로 부진한 의병 투쟁 대신 대구광문사와 대동광문회(김광제·서상돈), 우현서루와 대구광학회(이일우) 등 못 단체의 애국계몽운동, 달성학교(達城學校)와 협성학교(協成學校) 등 근대 교육기관 설립, 비밀결사인 달성친목회(達城親睦會) 조직(1908년) 및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 참여(1909년) 등 저항이 가능했다. 특히 서상일(徐相日), 이시영(李始

榮), 이경희(李慶熙) 등이 참여한 달성친목회는 강제병합으로 활동이 중단된 뒤 1915년 윤상태(尹相泰)를 통령으로 하는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의 새로운 비밀결사로 재건, 대구 독립운동의 맥을 이었다.

또 경북 고령 출신 남형우(南亨祐)가 1909년 서울서 만든 대동청년단(단원 53명 추정)에 서상일, 최윤동(崔允東), 배천택(裨天澤), 이경희, 윤상태, 신상태(申相泰) 등 대구 청년들이 대거 참여해 대구의 독립운동과 항일투쟁 인물로 거듭났다. 대동청년단은 국내는 물론 중국 만주 등지까지 조직망을 갖춘 비밀결사로 대구는 이런 조직망을 잇는 무대였다. 서상일의 태궁상회(太弓商會), 안희제(安熙濟)가 부산에 세우고 최부자 최준(崔浚)이 대구 사장이던 백산상회(白山商會) 등의 상업망이 활용됐다.

경술국치 이전 대구 항일활동으로 특히 1907년 2월 나라빚(국채) 1천3백만원을 갚자고 대구 사람들이 나선 국채보상운동은 경제 항일활동과도 같다. 계몽활동가인 서상돈(徐相燾) 대구광문사 부사장의 제안에 김광제(金光濟) 사장 등 대구·경북 사람의 뜨거운 동참으로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길인에서 앵무(앵농산) 같은 의기(義妓), 양반 관료에 이르는 대구·경북 울타리를 넘어 확산된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음흉한 국권침탈 흥계를 세상에 알려 전 국민의 거국적인 국권회복 동참 계기가 됐다.

2천만 백성이 3개월 금연(禁煙), 달마다 한 사람이 20전씩 모아도 국채 1천3백만원은 거의 거둘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서상돈의 제안에 백성들과 대한제국 고종 황제와 황실까지 나섰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었고, 이를 찬양하는 국채보상가 노래도 나오고 술한 모임도 결성됐다. 무엇보다 여성참여 열기가 뜨거워 전국 처음으로 대구의 정경주(鄭瓊周)

주도의 7부인이 조직한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를 비롯, 전국에 48개 (준)단체가 생겼고 대구 여성들의 국권회복활동 참여를 촉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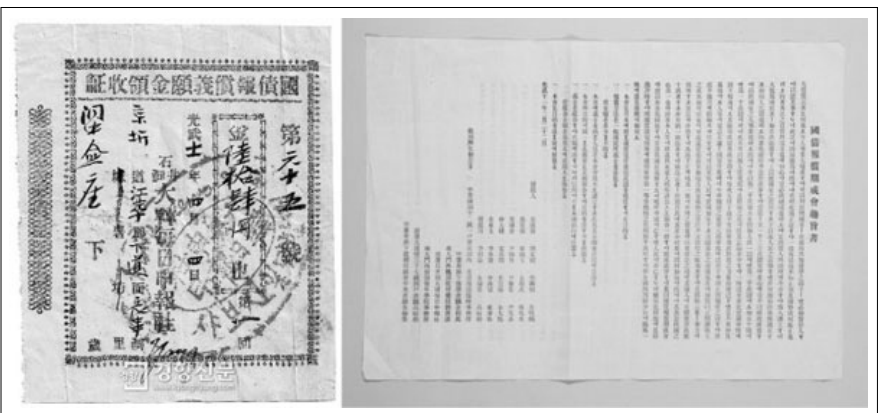
또한 국채보상운동은 베델 사장과 양기탁 총무 체제의 <대한매일신보>와 몇 언론들의 집중적인 홍보와 지원 보도까지 겹쳐 국내를 넘어 연해주 등 나라 밖 동포와 외국인조차 참여하는 전례 없는 구국운동으로 승화했다. 그러나 일제 음모와 방해 공작, 무력적인 탄압으로 미완(未完)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모금액도 1천3백만원에 미치지 못해 20만원(학계 추정)~231만원(미확인 통계)에 그쳤지만 경제독립운동 성격의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은 이어졌다. 1915년 조선산직장려회 결성,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등을 거쳐 국채보상운동은 경제자립과 경제 독립의 절실함을 깨닫게 했다.

한편, 국채보상운동은 90년 뒤인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장롱 속 달러와 금 모으기 운동으로 되살아났다. 금 모으기에는 국민 351만명이 동참, 227.57톤이 모여 나라 안팎을 놀라게 했다. 언론에서 “신국채보상운동”이라고도 표현한 까닭이다. 국채보상운동에 깃든 나라 살리는 애국정신과 거국적인 국민참여의 숭고한 뜻을 기려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신청 결과, 2017년 10월 31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모금은 지금껏 증가세다.

3. 항일 애국계몽 정신 이어 만세운동과 의열투쟁 나선 대구

애국계몽운동, 근대교육기관 설립, 국채보상운동, 비밀결사로 저항하던 대구는 1910년 국망(國亡)과 무단통치에 맞선 독립투쟁에 나섰다. 1915년 1월 안일암 시회(詩會) 때 윤상태를 통령으로 하고, 대구사람 중심에 경상도 출신 등 51인(추정)의 비밀결사로 조직된 조선국권회복단은 1919년 발각(대구28인사건) 때까지 활동했다. 1915년 8월 달성공원에서는 박상진(朴尙鎭), 우재룡 등 200여 명이 대한광복회의 비밀단체를 꾸려 대구 권총사건, 일본인 광산 공격, 우편마차 습격, 친일파 처단 등 1919년까지 활약해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중 가장 투쟁적인 단체로 평가될 만큼 이름을 떨쳤다.

대구 독립운동은 1919년 3·1만세운동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만세시위는 다소 늦은 3월 8일 서문시장부터 시작돼 도심에서 최고 2천여 명이 모이는 등 3차례나 계속됐고, 경북으로 번져 대구 인근은 4월까지, 경북 곳곳에서는 5월까지 시위했다. 1차 시위 때 아버지 김태련(金兌鍊) 조사(助事)와 함께 나선 아들 김용해(金湧海)가 일경에 맞아 순국했고, 대구주둔 일본군 80여대의 중무장 진압과 일경의 잔혹한 탄압으로 대구에서 여성 참여자 16명을



국채보상운동



일제강점기 당시 서문시장의 모습

포함, 모두 297명이 붙잡혀 95명이 기소됐다.

대구 만세운동 당시 학생활동이 돋보였고, 대구고등보통학교, 계성학교, 신명여학교 학생들은 만세운동에다 동맹휴학도 펼쳐 대구 독립운동의 중심세력이 됐다. 이영식(李永植) 등 학생들은 혜성단(慧星團)이란 비밀결사도 결성했다. 일제에 맞서 철시(撤市)운동과 친일파 및 관공리 경고, 격문 살포와 협박, 만세운동 방해 세력인 친일파 박중양의 대구자제단의 활동 저지에도 나섰다. 학생들의 옥살이와 퇴학 등 희생이 컸는데, 만세운동 기소자 95명 중 학생이 56명으로 가장 많은 것도 그 결과였다.

만세운동으로 대구 독립운동도 달라져 학생·청년지향이 뚜렷했고, 독립운동 참여폭도 넓어졌다. 기소된 95명에는 학생외 농민·상인·노동자 등이 26명, 종교계와 교사 등도 13명이었다. 만세운동은 보수 대구 유림의 파리장서운동 동참을 낳았다. 전국 137명 서명자 중 대구(달성)가 전국 제1의 성주(15명) 다음인 13명이고, 조선국권회복단은 따로 조궁섭(曹肯燮)의 독립청원서 작성, 상해 방문 및 청원서 배포까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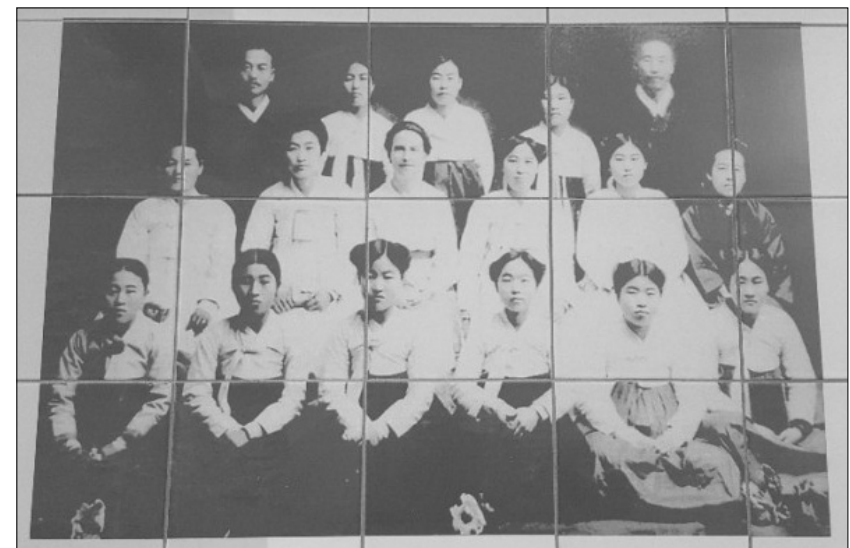
3월 만세운동 이후 상해임시정부 수립 등 새로운 독립투쟁이 전개되고 1919년 11월 중국에서 의열단(義烈團) 결성 때 대구사람은 의열(義烈)투쟁을 택했다. 1920년대 독립운동사를 빛낸 의열단에는 대구은행 돈 1만500여원(또는 1만911원50전)을 갖고 망명해 독립자금화하고 의열단 부단장이 된, 태중(胎中)의 아들을 둔 신흔의 대구은행원 이종암(李鍾岩) 외 서상

락(徐相洛)이 13명의 창단 요원에 포함됐다. 결사대원 70여명 등 200명 넘는 의열단에는 배천택, 서동일(徐東日), 이경희, 이상정(李相定)·권기옥(權基玉) 부부, 현정건(玄鼎健) 등 대구사람 여럿이 합류했다.

특히 이종암 부단장은 1917년 12월 대구은행 돈을 군자금으로 갖고 중국에 망명(제1 경북 중대사건), 의열단 조직에 보탬다. 그는 국내를 6차례나 잠입, 1925년 붙잡혀 1930년 5월 35세에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할 때까지 밀양·진양 폭탄 사건, 상해 황포탄 폭탄 사건, 김시현 의거(황옥 사건), 군자금조달 사건 등 숱한 독립투쟁에 헌신했다. 이밖에 남문시장 폭탄 암살모의, 제2 경북 중대사건(일본인 수사사살), 이강희(李康熙) 등의 대구 달성공원의 비밀결사 ‘ㄱ당’ 결성, 이두산(李斗山)의 국제여론 환기 활동, 장진홍(張鎭弘)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사건 등도 대구 독립운동사를 빛냈다.

4. 독립사상의 용광로로 독립운동가 양성소, 대구

애국계몽 활동부터 3월 만세운동을 거치면서 대구는 지리적 여건과 개방적 분위기, 교육과 상업도시화로 다양한 사상과 이념의 용광로가 되고 독립사상의 배양과 전파처로 역할했다. 1920~1930년대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함께 독립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한 학생



3·1운동에 나선 신명여학교 학생들

투쟁과 활동이 두드러진 점도 그런 배경 덕분이었다. 특히 대구고보, 서울(1922년)에 이어 1929년 설립된 대구사범학교 등의 학교로 대구는 교육도시 명성을 날렸고 독립의 자양분 제 공으로 대구에서 공부한 젊은이는 각지로 흩어져 항일세력이 됐고 그들의 희생과 독립운동 은 1940년대 광복 때까지 그칠 줄 몰랐다.

일본에서 박열(朴烈)과 함께 비밀결사를 했던 서동성(徐東星) 등 대구 청년은 1925년 9월 무정부주의 이념으로 뭉친 진우연맹(眞友聯盟)으로 저항했고, 윤우열(尹又烈)은 1926년 1월 일제 항거를 호소하며 허무당선언을 발표했다. 대구 학생들은 사상 강좌와 사회주의 물결 속 신우동맹(新友同盟), 구화회(丘火會), 혁우동맹(革友同盟), 적우동맹(赤友同盟), 일우당(一友黨), 불세회, 우리동맹 등 학생비밀결사를 잇따라 꾸렸고, 동맹휴학투쟁 등의 저항으로 1920년대 대구 학생 항일 흐름을 형성했다.

학생비밀결사 투쟁은 1930~1940년대에도 멈추지 않았다. 대구사범학교의 1930년 독서 회 사건과 1939년 근로보국대 동원 저항인 왜관 사건, 1930년 대구상업학교 비밀결사와 반 제격문 살포, 대구고등보통학교·계성학교 학생의 1931년 사회과학연구회 결성과 활동, 대 구농림학교의 1933년 반전비밀결사 조직과 반전반제격문 사건 등 학생 저항은 숙지 않았다. 일제는 특히 대구고등보통학교와 대구사범학교, 대구상업학교 조직의 네 비밀결사 활동을 대구 4대 비사(四大秘社)라고 일컬을 정도였다.

학생투쟁은 1940년대에도 비밀결사와 신사(神社)파괴, 학병탈출 의거 등으로 이어졌다. 대구사범학교에서는 1940년 독서회 사건, 1941년 연구회 사건과 다혁당(茶革黨) 결성, 무우 원(無憂園) 결사로 나타났고, 대구상업학교는 1942년 태극단(太極團), 대구농림학교는 앨범



이육사

결사가 조직됐다. 일제 탄압으로 학생 희생은 커져 독서회·연구회·다혁당 사건으로 박제민(朴濟敏) 등 5명이, 무우원 사건으로 조형길(趙亨吉)과 최수원(崔壽源), 태극단 사건으 로 이준윤(李浚允), 이원현(李元鉉), 이상호(李相虎)가 순국 했다.

이처럼 대구 학생의 항일과 의열투쟁은 많았다. 그런 속에 서 술한 투옥도 버티며 붓으로 독립운동을 한 민족시인 이상 화(李相和), 동아일보 일장기 말살 사건의 현진건(玄鎭健), 대구 활동에 이어 의열단 가입 투쟁을 벌인 이육사(李陸史), 독립운동가 변호에 앞장선 이인(李仁) 변호사, 여성사회주의 자 정칠성(丁七星), 사회주의 노동운동가의 핵심 정운해(鄭

雲海) 등도 활약했다. 대구 독립운동은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이뤄졌다.

5. 나라 안팎 독립운동가 배출과 사상 이념의 수용과 전파 도시, 대구

나라 밖 독립운동은 중국, 일본, 미국이 주무대였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옛 조상들의 고토(古土)인 중국의 만주와 북경, 상해가 중심터였다. 만주의 독립운동 기관·단체인 신흥 무관학교, 서로군정서, 정의부, 의열단, 재만(在滿)농민동맹, 홍업단 등이다. 임시정부와 임 시의정원, 임정 지원 외곽단체인 상해청년동맹과 병인의용대, 이동시기 임정, 고토회복(삼 국사기 기록)의 뜻을 가진 다물회 등 비밀결사도 무대였다.

문영박(文永樸), 배천택, 백남규(白南圭), 현정건, 이강희, 이두산과 아들 이정호(李貞 浩)·동호(東浩) 형제, 이상정·권기옥 부부, 의열단 부단장 이중암 등이 그들이다. 동생 현 진건과 형제 독립운동가인 현정건은 분열된 독립운동 진영의 융합에 특히 힘쓰다 20년 세월 의 망명 독립운동을 1932년 40세 순국으로 마쳤다. 이상화의 형 이상정 장군 역시 중국 정 부와 임시정부를 오가며 활약했고, 이두산(또는 이현수)은 한중(韓中)·한베트남(韓越) 연대 활동을 강조하는 등 남다른 활동을 폈다.

신라가 옛날 정치 자문하고 백제 유민이 공헌한 일본에서는 1920년 유학생 서상한(徐相 漢)이 영친왕 이은과 일본 왕족(李芳子)과의 정략결혼 예정 혼례식장에 폭탄을 투척했고, 1923년에는 서동성이 일본 태자 결혼식 때 폭탄투척을 위한 비밀결사인 불령사(不逞社)에 가입했으나 거사는 무산됐다. 사회주의 운동가 정칠성은 일본에서 대구로 무대를 옮겼고, 정확이(鄭鶴伊)는 오사카에서 활동 중 1933년 검거, 1934년 형무소에 22세로 순국하는 등 여럿 인물이 활동했다. 미국에서는 독립운동후원과 독립운동단체 활동을 폈고, 일제 앞잡이 미국인 스티븐슨을 1908년 3월 처단한 장인환과 전명운 돕기에 나선 송종익(宋鍾翊)이나 여 성독립운동가 이희경(李熙卿) 등이 있다.

이처럼 대구 독립운동은 오랜 역사적 전통과 맞물려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졌다. 이는 정부 의 독립유공자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2018년 8월 현재 1만5천52명의 독립유공자 가운데 대 구는 155명으로, 전국 8대 대도시에서는 서울(401명) 다음으로 많다. 촘촘한 감시망과 군경 (軍警), 각종 일제 식민통치기구가 준비하고 일본인 비율이 유난히 높았던 당시 대구사회의 불리한 상황을 감안하면 놀랄 만한 숫자일 수 있다.

특히 독립운동의 명문(名門) 집안으로 평가할 만한 인물도 술하다. 김진만-영우-일식의 3 대(代)와 김태련-용해, 이현수-정호·동호의 부자(父子)에다 김진만·진우, 백남채·남규,



이경희·강희, 이상정·상화, 이용로·봉로, 서상규·상락·상일·상한, 정운일·운기, 한정건·진건 등 형제만도 여럿이다. 이상정·권기옥, 이희경·권도인 같은 부부에도 숙질(아재와 조카)의 이시영과 이인, 사돈인 윤상태·정운기와 이경희·정운일 등도 있다.

또 대구 독립 청사(靑史)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애국지사, 조력자는 더욱 많다. 제2 경북 중대 사건인 가이 일본순사 사살사건 관련 독립운동가 최운동을 따라 중국까지 동행하며 도운 기녀(妓女) 김연수(金緣洙), 1926년 김창숙(金昌淑) 등 주도의 제2유림단 의거 관련 유일 여성인 박만규(朴晩閨), 1922년 흥업단의 독립군자금모금 사건에 참여한 박수의(朴守義), 사회주의운동가 이춘수(李春壽), 현정건을 도운 기생(妓生) 출신 현계옥(玄桂玉) 등 그나마 기록된 대구 여성들이나 강두안·박찬웅·서진구·장세파 등 광복 전후에 고문 후유증 등으로 순국한 대구 청년들이 그런 인물이다.

다른 모습도 있다. 독립군 자금 마련을 위해 부자(富者)인 아버지(서우순)를 덮친 거사에 나서야만 했으나 결국 효(孝)의 도리에 변민하다 자살한 아들 서상준과 총독부 관리(官吏)를 바란 중추원참의 친일파 아버지(이병학)와의 갈등에 자살로 요절, 친구 이상화·현진건처럼 독립운동에 나서지 못한 시인 이장희(李章熙) 같은 비극적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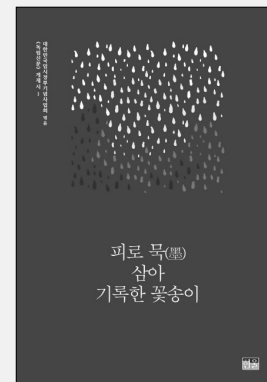
한편, 독립과 광복을 위해 하늘의 별이 된 대구 사람들은 독립에 도움이 되면 어떤 사상, 이념, 생각도 포용했고, 대구는 바로 그런 열린 도시였다. 대구는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렸을 만큼 못 사상이 모였고 전파도 한 도시였다. 1920년 10월 일본인들조차 대구에서 일본 체제를 공화정체로 바꿀 거사를 꾸미다 수포로 끝난 ‘Z단 사건’과 1927년 일본 지식인 시바 다 겐스케의 사회주의에 대한 대구 강의로 그런 맥락이다.

뒷날 학계에서 분석한 ‘진보지표’를 잣대로 한 연구(손호철)에서 대구와 경북의 분명한 위치를 드러낸 결과물은 좋은 자료이다. 일제, 해방정국, 1952·1956·1963년 대선, 1960년 총선을 따졌더니, 경북 특히 대구의 진보 수치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구를 포함한 경북의 진보지표 역시 다른 도(道)보다 앞섰다. 주요 도시별 비교에서도 대구는 마찬가지로 다른 곳보다 분명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독립운동의 역사 기록과 뒷날 학계 분석처럼 대구는 일제강점기 때 사상과 이념의 용광로였다. 독립운동정신 계승으로 광복 이후 전국에서도 드물게 좌우가 어울린 대구 모습은 대구의 성격을 가늠케 했다. 혼란과 극심한 좌우갈등 속 대구는 좌우를 넘어 3·1절과 광복절 공동개최, 좌우 4개 정당 합동공동위원회 구성과 치안유지 등을 했으니 말이다. 이승만정부 독재에 맞서 고등학생들이 결연히 일어난 대구 2·28학생의거로 4·19혁명을 앞당긴 선두 역할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대구는 그랬서예! 

피를 묵(墨) 삼아 기록한 꽃송이

• 지은이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역음) • 쪽수 | 335쪽 • 출판사 | 한울



시로 써 내려간 ‘독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 실린 시를 모아 게재 일 순서대로 엮은 시집. <독립신문>은 안창호의 주도로 창간되었으며, 창간호(1919.8.21) 당시 제호는 <독립>이었으나 제22호(1919.10.25)부터 <독립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제198호(1926.11.30)까지 발행되었으며, 상하이 프랑스조계 당국의 폐쇄 명령과 재정 곤란 등으로 수차례 정간을 겪다가, 임시정부가 충청으로 옮긴 이후 <독립신문> 중문판이 속간되었다.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받아야 했던 국내 문학 작품과 달리, 이 책이 엮은 178수의 시들은 독립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오롯이 담고 있다. <피로 묵(墨) 삼아 기록한 꽃송이>는 독립운동사의 지평을 넓히는 사료임과 동시에, 우리 근대문학의 뿌리를 추적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 지은이 | 오창익 • 쪽수 | 308쪽 • 출판사 | 삼인



인권운동가 오창익의 거침없는 한국사회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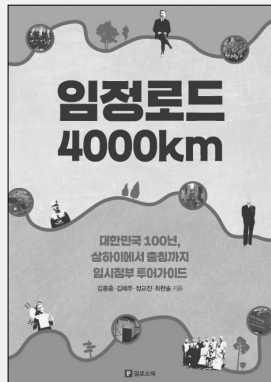
현장을 지키는 인권운동가가 쓴 대한민국의 민낯 보고서.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의 시대에,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65가지 부조리극을 고발한다. 형사사건 무죄율 0.18퍼센트(2005년 현재). 경찰과 검찰이 일을 잘해서일까. 법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저자의 시각이다. 전국 어딜 가나 들어갈 수 있는 24시간 영업집들. 한밤중에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사회를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비정한 사람이다. 그 편리함은 줄린 눈을 비비며 밤새워 일하는 가난한 집 청소녀를 쥐어짠 대가다.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은 오창익의 첫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그린 지은이는 후속 작업으로 <십중팔구 한국에만 없는!>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책은 우리 사회가 온통 ‘지양’해야 할 것들이었지만, 다음 책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들에 대한 보고서가 될 예정이다



임정로드 4000km

• 지은이 | 김중훈 · 김혜주 · 정교진 · 최한솔 • 쪽수 | 352쪽 • 출판사 | 필로소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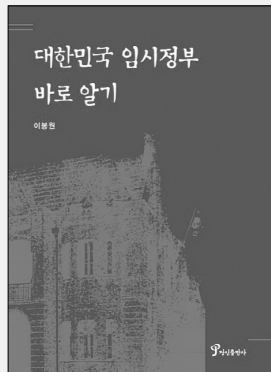
대한민국 임시정부 순례길 가이드북!

대한민국이 탄생한 '상하이 서금이로'부터 국군의 뿌리인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충청 광복군 충사령부 터까지. 중국뿐 아니라 대만과 일본에 있는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 유적지 44곳을 망라한, 국내 최초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순례길 가이드북. 일본 육군대장을 단도 하나로 처단한 대만의 조병하 의사 의거지, 윤봉길 의사의 생애 마지막날 행적을 추적한 일본 가나자와의 유적지. 그리고 효창원과 경교장 등, 국내에 얼마 남지 않은 독립의 흔적을 찾아 떠난다.

저자들은 말한다. “걷지 않는 길은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이야말로 치열했던 우리 역사를 기억하는 가장 특별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독립운동사의 이해를 돕는 13편의 스페셜 페이지와 실시간 지도(QR코드)가 첨부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 알기

• 지은이 | 이봉원 • 쪽수 | 184쪽 • 출판사 | 정인출판사



다큐멘터리로 풀어 쓴 임시정부 27년사

알기 쉬운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사를 담아낸 역사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바로 알기>. 이 책은 해설자의 내레이션과 체험자의 증언을 함께 엮어 나가는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임시정부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연표와 임시정부와 관련된 문답, 독립운동가의 유언과 백범 김구의 메시지,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의 실태까지 생생한 사진을 더해 치열했던 독립운동사와 임시정부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저자 이봉원은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고, 육군 중위로 전역한 뒤, 극단 알라성 대표, 기독교방송 프로듀서, 국립영화제작소 감독, 극영화 감독,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기록영화를 제작하는 알라성프로덕션의 대표로 있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 77주년 기념식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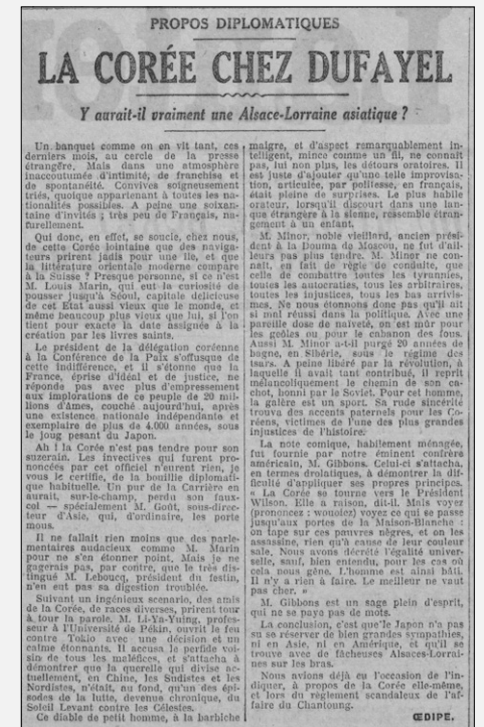
12월 10일(월)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 77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유철 광복회장, 이영수 한국광복군동지회장,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처장 등이 참석하여 만세삼창을 외쳤다.

임시정부는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1941년 12월 10일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문인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해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천명했다.

우사 김규식, 100년 전 프랑스 고별연설 내용 최초 확인

대한민국임시정부 파리위원부 대표를 지낸 김규식이 파리를 떠나기 직전 한국 문제에 대한 서구열강의 무관심과 비협조를 외국 지식인들에게 강력히 성토했던 내용이 처음 확인됐다. 미국행을 앞둔 김규식의 걱정적 토로는 1919년 8월 초 파리에서 열린 김규식 환송연에 참석한 프랑스 기자가 기사로 남겨 놓았고, 재발 독립운동사학자 이장규 씨가 최근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해당 기사를 처음으로 찾았다.

김규식 선생은 4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고 독립국가로 존재했다가 지금 일본의 속박 아래 꼼짝 못하고 떨고 있는 2천만 영혼의 간청에도 성의 있게 답하지 않는, 정의와 사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프랑스에 경악했다고 프랑스 기자에게 털어놓았다. 기자는 또 김규식 선생의 연설이 매우 걱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김규식 선생의 활동을 기록한 관련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큰 희소성을 가진 자료로 평가된다.



광화문광장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홍보탑' 제막



12월 20일(목) 광화문광장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홍보탑 제막식이 열렸다. 홍보탑은 상해 임정청사를 모티브로 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유산을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외벽은 중국 상해 현지에서 생산된 적색 벽돌을 사용했고, 출입문도 임정수립 이후 흘러온 시간의 흔적을 질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다. 홍보탑은 내년 4월까지 설치 운영된다.

다큐멘터리 음악극 <길 위의 나라>, 제7회 한중우호교류의 밤 초청 공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맞아 공연한 다큐멘터리 음악극 <길 위의 나라>가 12월 26일(수)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한중우호교류의 밤 행사에 초청 공연됐다. <길 위의 나라>가 초청 공연되는 이번 한중우호교류의 밤 행사에는 이동휘, 오영선, 유기성, 이동화, 김진용 등 중국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저보성, 쑤징화 등 한국 독립을 도운 중국인들의 후손들도 참석해 더욱 의미깊은 공연이었다.



윤봉길 의사 순국 제86주기 추모식, 효창공원 묘역에서 거행돼



12월 19일(수) 용산구 효창공원 내 윤봉길 의사 묘역에서 매한 윤봉길 의사 순국 제86주기를 맞아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上海) 홍커우공원(虹口公園)에서 열린 '일본군 상해 점령 전승 경축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군 수뇌부를 폭사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고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

였다. 이날 추모식은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기념사업회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 및 추모사, 헌화·분향, 추모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18년도 임정기념사업회 '송년의 밤' 행사

12월 6일(목) 저녁 6시부터 2018년도 임정기념사업회 '송년의 밤' 행사가 경희궁 뷔페에서 열렸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는 임원 및 회원, 답사단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만찬을 즐기며, 제14기 독립정신 답사단 영상을 관람하고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김구로드 프로젝트〉 성황리에 개최



어바웃 클래식 그룹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 본회가 협력하는 〈김구로드 프로젝트〉 서울공연이 12월 7일(금) 열렸다. 〈김구로드 프로젝트〉는 100년 전 그리고 70년 전 걸었던 백범 김구의 전국 일주 길을 따라 논산, 공주, 강화, 보성, 강진, 무안, 여수, 완도, 창원, 광주, 서울 등을 순회하는 공연 프로젝트이다. 서울 공연은 경교장을 답사하고 서울 역사박물관으로 이동해 이만열 교수가 〈대한민국 100년〉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강의가 끝난 후, 〈김구 아리랑〉 음악회가 이어졌고, 참석자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다.

조경환 의병장 공훈선양 학술강연회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광주 출신 11월의 독립운동가 조경환 의병장 공훈선양 학술강연회가 11월 16일(금) 광주 광덕고 비전홀에서 열렸다.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조경환 의병장에게 국가보훈처장의 기념패와 광복회장의 축하패가 헌정됐으며, 공훈선양 학술강연회도 진행됐다. 조경환 의병장은 호남지방에서 의병을 일으킨 김태원 의병장의 좌익장으로 활동하며 함평읍, 창평 무동천, 장성 낭월산, 영광 월암산, 광주 어등산 등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새날희망연대 110차 전략포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자동〉 개최



새날희망연대는 1월 4일(금) 향린교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자동〉을 주제로 110차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서평일 한신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섰고, 지난 10월 발간된 김자동 회장의 회고록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이 포럼 자료로 활용되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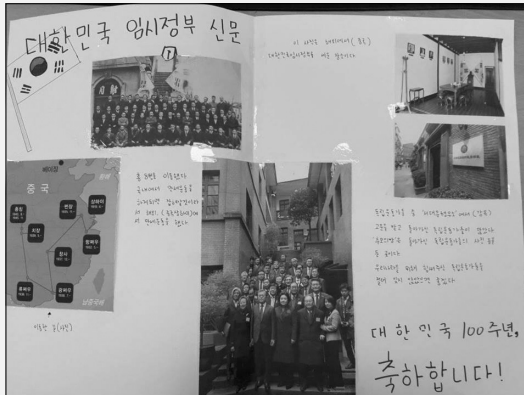
3·1운동 100주년 간송특별전 ‘대한콜렉션-대한의 미래를 위한 컬렉션’ 개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간송특별전 ‘대한콜렉션-대한의 미래를 위한 컬렉션’이 1월 4일(금)부터 3월 31일(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 박물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본에 대항해 모았던 국보·보물 중심의 유물들인 경성미술구락부, 갯스비컬렉션, 보화각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또한, 3·1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보성고보의 독립선언서 초판본을 비롯한 컬렉션도 함께해 3·1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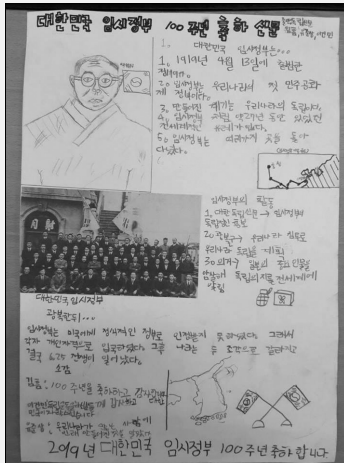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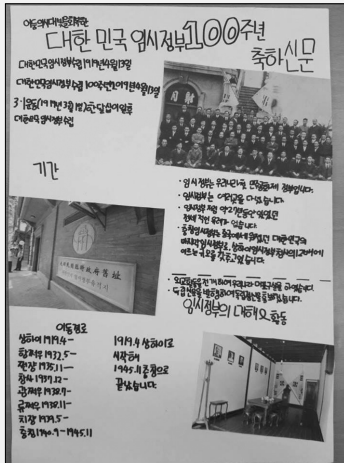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 감사드립니다.



서울 삼양초등학교 4학년 5반(담임 배성호)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힘쓰신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독립자금을 마련하는 것처럼 바자회 준비를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고마운 노력의 결실인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본회에 기부해 주었습니다. 바자회를 마친 후, 4학년 5반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찾고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임시정부 100년 축하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4학년 5반 친구들의 예쁜 마음 하나하나가 모인 소중한 성금이 뜻 깊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8년 11월, 12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11월	12월	회원명	11월	12월	회원명	11월	12월
강만길		2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후삼	10,000	10,000
강재옥	20,000	20,000	배상윤	5,000	5,000	임재경	10,000	10,000
강찬모	20,000	20,000	배해원	10,000	10,000	임진택	5,000	5,000
곽태원	50,000	50,000	백낙청	10,000	10,000	임홍재	10,000	10,000
권영관	10,000	10,000	백부원	10,000	10,000	장두영	10,000	10,000
권오영	10,000	1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장두원	20,000	20,000
길사원	10,000	10,000	빙인섭	30,000	30,000	장상록	10,000	10,000
김광림	30,000	30,000	서동희	5,000	5,000	장채령	10,000	10,000
김광재	5,000	5,000	서봉수	10,000	10,000	전영복	10,000	10,000
김광재	50,000	50,000	서흥관	30,000	30,000	전우규	30,000	30,000
김국영	10,000		석해진	10,000	10,000	정관훈	100,000	100,000
김대현		15,000	신윤경	500,000	50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동수	30,000	30,000	신태영	10,000	10,000	정민규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신희범	10,000	1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률근	10,000	10,000	심옥주	10,000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봉현	30,000	30,000	심재권	30,000	30,000	정현주	50,000	50,000
김빛나	10,000	10,000	안재웅	10,000	10,000	조대원	10,000	
김상웅	20,000	20,000	양인선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성근	10,000	10,000	엄기남	10,000	10,000	조선희	10,000	10,000
김성배	10,000	10,000	엄승훈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수옥		300,000	오난희	20,000	20,000	조영빈	5,000	5,000
김숙정	50,000	50,000	오상균	10,000	10,000	조용옥	10,000	10,000
김영방	10,000	10,000	오정섭	20,000	2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영일	10,000	10,000	우상호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용수	5,000	5,000	원영애		20,000	조회환		80,000
김 위	20,000	20,000	유덕근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은수	10,000	10,000	유영일	30,000	30,000	차영조	30,000	
김인술	240,000		윤용환	10,000	10,000	채성오	5,000	5,000
김자동	100,000	100,000	윤종순	5,000	5,000	채현국		50,000
김재홍	10,000	10,000	윤종준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정인	20,000	20,000	윤철호	100,000	100,000	최권행	30,000	30,000
김종규	10,000	10,000	윤한옥	10,000	1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중숙	10,000	10,000	이계환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태동	30,000	30,000	이규중	30,000	30,000	최석우	50,000	
김태원	10,000	10,000	이기자	20,000	20,000	최수희	30,000	30,000
김판수	5,000	5,000	이동진	20,000	20,000	최희주	10,000	10,000
김학근	20,000	20,000	이병국	300,000		한의석	10,000	10,000
김혜련	20,000	20,000	이상준	100,000	100,000	한홍구	20,000	2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상준	100,000	100,000	홍범식	20,000	2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상훈	20,000	20,000	홍석천	5,000	5,000
남만우	100,000	100,000	이석문	10,000		홍용희	10,000	10,000
노수문	20,000	20,000	이양순	20,000	20,000	황명하	10,000	10,000
노영택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노웅래	20,000	20,000	이우재	10,000	10,000	황인자	30,000	30,000
류한수	30,000	30,000	이윤옥	20,000	20,000			
민향선	30,000	30,000	이운국	5,000	5,000			
박년희	10,000	10,000	이일선	20,000	20,000			
박노삼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박덕진	10,000	10,000	이중찬	100,000	100,000			
박아영	10,000	10,000	이진규	10,000	10,000			
박용규	10,000	10,000	이창윤	10,000	10,000			
박유진	10,000	10,000	이창중	20,000	2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 철	10,000	10,000			
박의란	20,000	20,000	이학노	20,000	2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학효	10,000	10,000			
박재민	10,000	10,000	이향중	30,000	3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현진	10,000	10,000			
박제선	30,000	30,000	이호현	20,000	20,000			

2018년 11월, 12월 특별회비

회원명	11월	12월
(주)오토	18,000,000	18,000,000
(주)청풍상사	30,000,000	
김현주	1,000,000	
오체안피부과	500,000	
삼양초 4-5		185,000
세무법인 더택스		20,000,000
김종봉		10,000,000
이혜경		6,000,000

◆ 입 회 원 서 ◆

이 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 택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직 업		소 속	
비 고			

본인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③

안성의 3·1운동 인물과 서대문형무소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한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다. 일제는 당시 안성 지역에서도 일어났던 3·1운동을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遂安面),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玉尙面)과 함께 전국 3대 만세시위의 하나로 꼽았다.¹⁾ 안성에서 일어난 3·1운동은 안성읍, 원곡·양성, 죽산 세 지역으로 나뉘어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지역들은 원래 행정구역상 독립된 곳이었으나 일제의 행정 개편으로 1914년 죽산과 양성이 안성으로 통합되면서 현재의 안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안성 출신 독립운동

가들의 현황은 그동안 독립유공자공훈록, 안성3·1운동기념관에 등재된 순국선열 명단 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자료인 판결문, 재소자신분장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소장 기관이 흩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성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안성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총정리한 자료집을 2017년에 발간했다.²⁾ 이 자료집은 안성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미포상자, 판결문, 범죄인명부 등을 조사하여 총 316명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 서대문형무소 수감자들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수형기록카드에서는 안성 출신 인물 39명이 확인되었다. 이 사람들 중 18명이 3·1운동 관련으로 수감되었는데, 안성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17명이다. 수형기록카드에 남아있는 안성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판결문을 보면 안성읍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죽산은 4월 1일부터 2일까지 각각 수십 명씩 모여 만세운동을 펼치다, 인접 지역과 합류하여 큰 집단을 이루어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 내용은 기존 연구자들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경우 지역 사람들에게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서로 규합하여 시위대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드는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했다. 또한 시위대를 이끌고 주재소, 경찰서 등에서 독립에 대한 염원을 표출하는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수형기록카드의 직업을 보면 대부분이 농민과 상인이지만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는 3·1운동에 참여한 한국인들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보안법을 적용, 최소 징역6월에서 최대 1년6월을 선고했다. 식민지배를 위해 한국인에게만 적용시킨 보안법 규정이 '10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점을 볼 때 수형기록카드에 있는 안성의 3·1운동 참여자들이 과중한 처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일제는 수감자들을 통제·관리하기 위해 수형기록카드를 작성했다. 이 카드에는 사진과 함께 이름, 직업, 나이, 키, 주거지, 지문번호 등 개개인의 여러 가지 신상 정보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범죄율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명분 아래 수감자들의 상세한 정보가 수집·확인·공유되는 것이다. 본적·주소·거주지를 통해 수감자의 이동과 활동 지역 그리고 함께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 친구, 이웃들을 압박하는 데 이용되어 독립운동가들의 피신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실제로 원곡면 만세시위 주동자 중 한 명인 최은식은 일제가 그의 부친을 경찰서로 끌고 가서 가혹한 매질을 한 후 '최은식이 나타나면 풀어줄 것'이라는 소문을 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은식은 돌아와 바로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 시기 감옥은 수감밀도가 높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으며, 적은 식사량과 고문으로 생활이 아닌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형기록카드의 작성으로 자신의 존재를 일제에 훤히 드러내 보였던 안성의 3·1운동 참여자들은 서대문형무소 속에서 식민지 현실을 철저하게 느꼈다. 반면에 일제는 억압, 공포 등을 확산시키며 식민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근대사회에서의 감옥은 사람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만들고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곳이다. 즉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대 감옥이다. 하지만 식민지 시대에는 이러한 순기능이 발현되지 못하고 감금과 탄압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안성 출신의 3·1운동 참여자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대문형무소이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100年 편지



편지를 보내주세요

‘100년 편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1919.4.11)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2019)을 맞아 쓰는 편지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과 인간형을 넘나드는,
역사와 상상이 조우하고 회통하는,
100년 편지는 편지이자 편지로 쓰는 칼럼입니다.
내가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쓰거나,
내가 김구 선생이 되어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부터 시작하여
격주에 한 통씩 메일로 발송되는
100년 편지는 현재 약 3,500명 정도 받아보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계속 수신인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전 국민이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발송되는 100년 편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역사 속 인물에게 편지(원고지 5매~7매 분량)를 보내 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100년 편지를 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로 연락 주세요.

www.korea/00.kr

보내주실 곳 : (031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로얄빌딩 602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E-mail : kpg1919@korea.com

*채택되신 분께는 감사한 마음으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